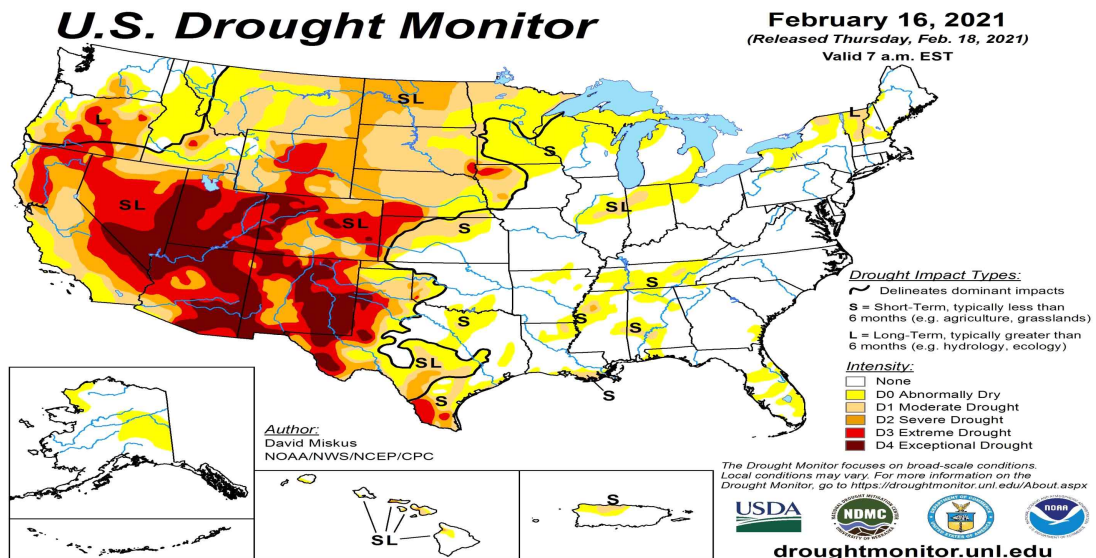


2월 2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8, No. 8)

□ 미국 기후 현황(2/14~2/20)

연속적인 폭풍들이 북극 돌풍과 상호작용하면서 북서부 및 남부 평원에서부터 남부 중앙 및 중서부 하부까지 눈과 얼음이 광범위하게 축적되었다. 동부지역에도 강수가 있었는데, 중북부 대서양 연안 주들에는 눈, 진눈깨비 및 얼어붙는 비가 언급되었다. 정전이나 여행 중단과 같이 폭풍 및 추위 관련 문제들이 미국 북서부와 남중부 지역을 괴롭혔다. 이어지는 충격들 가운데 음용수 부족 문제가 포함되었는데 특히 텍사스에서 심했다. 축우 생산자들은 가축을 구해내기 위해서 눈, 혹은 및 사료와 물의 부족을 겪으면서 싸웠고 일부 낙농업과 가금류 경영자들은 전력 및 열 부족과 싸웠다. 눈이 덜 내렸고 혹독한 환경에 더 익숙한 덕분에 농업에 미친 영향이 덜 하기는 했지만, 혹한의 날씨가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까지도 덮었다. 그러나 보호해주는 덮인 눈의 깊이가 얇거나 없는 지역들에서는 겨울 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밀 지역들은, 북부 및 중앙 평원 일부를 포함해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추운 날씨에 노출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사탕수수물론이고, 텍사스의 감귤류와 채소처럼 생산자들이 결빙에 영향을 받는 남부 농작물들을 계속 감시했다. 둘째 주 내내 찬 공기가 미국 중부를 가로질러 심하게 몰아치면서 중앙 및 남부 평원에서부터 미시시피 계곡 중부와 하부까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20~30° F 낮았다. 미국 남중부를 보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추운 날씨 때문에 텍사스 및 기타 미국 중부의 기타 일부 지역들에서는 정전, 물 부족, 여행난의 장기화로 인해 육류 및 유제품의 공급 사슬을 끊어져서 농업적 이익에 지대에 영향을 미쳤다. 주 후반에는 평원 전체적으로 기온이 반등하기 시작하여 기반시설 보수 등 한파 복구 노력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대분지와 남서부 사막과 함께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반도 만이 추운 날씨를 완전히 피했다. 남플로리다 일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 F 가량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 ()

: 내용없음

□ 세계 기후 현황(2/14~2/20)

■ 유럽: 유럽의 서쪽 및 북쪽 끝 부분에는 여전히 비와 눈이 내렸지만, 대륙의 많은 지역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가 정착했다. 지난 주 한파 이후 유럽 서반부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6° C 높았으나 발트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남쪽으로 그리스까지는 추운 날씨 (평년보다 2~6° C 낮음)가 계속되었다. 북유럽에 얇거나 적당한 정도의 눈 덮임 (2~20 cm)만 남았을 뿐 온기 때문에 많은 곳의 설피빙원이 녹았다. 대륙의 서쪽과 북쪽 둘레를 따라 적당하거나 강한 비와 눈 (10~90 mm, 액체 등량)이 보고되었지만,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다 (5 mm 이하). 습한 가을과 겨울 덕분에 봄 생장에 필요한 수분 공급은 적당하거나 풍부하게 유지되었고 겨울 작물의 전망은 호조를 유지했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몇 차례 드문드문 내린 소나기 (대체로 5 mm 미만)를 제외하면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 웨일즈의 주요 여름 작물 생산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배했다. 하늘이 대체로 맑은 덕분에 미성숙 면화와 수수의 성장이 촉진되었고 재배 초기에 파종된 품종들의 성숙을 도왔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높은 20도대에서 낮은 30도대 (섭씨) 사이였고, 이번 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았다 (평년보다 1~2° C 낮음).

■ 아르헨티나: 몇몇 주목할만한 건조 포켓이 지속되기는 했지만, 주초에 내린 소나기들이 아르헨티나 중부의 많은 지역에서 여름 작물들을 위한 습기를 증가시켰다. 북부 라 팜파에 서부터 북쪽으로 살타를 거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동부 해안을 따라 가장 많은 비 (25~50 mm, 몇몇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0 mm 가까이)가 집중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엔트레 리오스의 많은 지역과 산타 페의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곳들에는 10 mm 미만의 강우가 기록되었다; 더 동쪽에 있는 이들 농업 지역들은 재배기 내내 장기간 건조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의 수확 전망을 유지하려면 다시 계절성 강우가 내려야 할 것이다. 낮 최고 기온이 여러 날 30도대 중하반 (섭씨)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아르헨티나 중북부에 있는 주요 농업 지역들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 C 낮았다. 올 여름철 강우가 변덕스럽기는 했지만, 스트레스 성 더위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된 건조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월 18일 현재 해바라기 수확은 26% 끝났는데 (작년의 36% 대비), 일찍 심은 북부 농업 지역이 이런 결과를 주도했다. 따라서, 옥수수과 대두는 대부분 미성숙했고 추가 강우가 있을 경우 여전히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 브라질: 지난 주의 강우 패턴이 반복되면서, 북부 생산 지역은 널리 퍼진 소나기가 출현 중인 둘째 철 밭 작물에게 혜택을 주었고 남쪽의 많은 곳은 계절에 맞지 않게 건조한 날씨가 지배했다. 마토 그로소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는 농경지에는, 미나스 제라이스처럼 먼 남쪽까지, 총 25~100 mm의 비가 내렸다. 성숙 중인 대두에게는 너무 늦은 비였지만 그 수분은, 커피와 적절한 여름 강우에 의존하는 기타 작물을 포함해서 2차 옥수수과 면화에게 특히 시기적절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2월 19일 현재 대두는 34% 수확되어 5년 평균 대비 23 포인트 뒤쳐져 있었다; 특히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36% 및 95% 과종되어 둘다 평균을 밀돌았다. 반면, 마토 그로소와 상 파울로에서부터 리오 그란테 도 술 북부까지는 더 건조한 날씨 (총 강우량이 10 mm 이하)가 확장되었다; 야외 작업에는 유리했지만 많은 곳들이 연중 이 시점에서 건조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사탕수수의 선도 지역인 상 파울로는 올해 특히 건조하여 11월 이후로 평년 이하의 강수량이 있었다. 리오 그란테 도 술 정부에 따르면 2월 11일 현재 대두는 86%가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조기 과종한 옥수수는 42% 수확되었다고 한다. 파라나에서는 2월 15일 현재 첫 번째로 심은 대두와 옥수수의 각각 94% 및 95%가 종실비대기-성숙기 중에 있었고 얼마는 이미 수확되었다고 한다; 2차 옥수수는 8% 과종되었다.